

창의성에 대한 西洋의 관점과 東洋의 관점

“ 동양인은 左腦的 서양인은 右腦的 성향 思考 ”

任 善 河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

창의성을 사고의 한 영역으로 파악한다면 이 글의 제목은 사고에서의 동서양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달리 말하면 사고에 있어서의 동양과 서양의 관점 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과연 그 차이가 어떻게 또는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의 질문에 답하는 것을 중점으로 삼는다는 말이다. 물론 이 질문은 사람에 따라 그 인식의 정도와 범위가 다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문제거리가 못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인간이란 어디가나 다 같더라’거나 또는 ‘겉으로 드러난 차이는 현상적인 것으로써, 사고라는 심층적인 인간 특성에는 차이가 없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는 문화의 산물이며 문화가 다르다면 당연히 그에 부수되는 사고에서의 차이도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문화는 일정한 범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형성된다. 이 일정한 범위란 지역적일 수도 있고 심리적인 것일 수도 있다. 물론 이

들이 함께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일정한 범위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연의 상태에 삶이라는 인공을 가해서 형성하는 총체적인 산물’인 문화는 자연상태에 어느 정도의 인간에 의한 변화가 가해졌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요 탐구 대상으로 하는 창의성과 관련을 맺게 된다.

따라서 문화는 창의성의 이해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다. 사고의 문화간 차이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은 같은 서구문화권에 속하는 미국과 유럽 간에서도 서로 다른 고등 정신기능을 개념화 하려는 노력에서 읽을 수 있다. 프리먼(Freeman)은 “고도의 정신능력 : 유럽의 관점”에서 유럽 문화에 기초한 고도의 정신능력 개념화작업의 일면을 소개하고 있다. 기존의 고등 정신능력 이해가 미국적인 개념화였다는 인식에 따라 자신들의 독특한 고등 정신능력 개념화를 하려는 노력을 통해 문화간 정신능력에 관련된 이해 관계를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문화간 비교연구를 하는 많은 사람들은 동양문

화와 서양문화는 서로 다르고, 이 서로 다른 문화가 상이한 생각을 낳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동양과 서양 간의 사고의 차이는 동양인은 직관적으로 사고하고 관계적인 데 반해, 서양인들의 사고는 보다 더 분석적이고 독자적이라는 지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이고 대체적인 구분은 학교 교육 상황에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고의 교육을 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 특히 창의성 교육의 경우, 동양의 창의성에 대한 전제와 서양의 그것 간에 나타나는 근원적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서로 상대방의 교육을 이해하는데 한계를 갖게 된다. 특히 동양인에게는 이런 한계가 자체의 문화에 기초한 교육의 상실 현상을 가져온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창의성의 이론과 교육방안에 대한 동서간 비교 이해를 시도하고 이를 기초로 학교 교육 상황에서 동양적 관점의 창의성을 증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창의성의 내용요소와 관련 변인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문화간 비교의 기본 입장

동양과 서양간의 교류가 정확히 어느 때부터 시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16세기 들어 중국에 들어온 서양 교역자들에게 의해 촉진되었다는 점만은 확인할 수가 있다. 이후로 동서양의 지적 교류는 활발해졌으나 서구적인 관점에서 동양의 문화를 파악했던 관계로 동양의 문화는 “열등하고 서구의 문화를 지향해서 발전해 오고 있는 중”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인 일방적 교류만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타문화에 대한 이런 일방적인 관점은 서서히 변화되어 서양에서도 동양문화를 그 자체로 이해하고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전후 일본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서구인들의 동양에 대한 관심의 도를 잔뜩 부풀려 놓았다. 일본의 경제성장에 대한 서양인들의 이해는 기업의 생산성 또는 분위기 등 산출과 직접 관계

되는 영역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차츰 교육이라는 근본적인 측면의 이해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서양인들의 일본교육에 대한 많은 연구물이 나타났는데, 대다수의 관찰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일본교육에서는 엄격한 자기 도야와 기계적인 암기가 강조되지만 창의성, 자발성, 그리고 고등 인지기능들은 강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바로 이런 지적들의 근원을 이해할 필요 때문에 문화간 비교연구가 요청된다. 문화간 비교의 입장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많은 문화간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 답할 수 있는 학자 중에 바크(Wach, J.)가 있다. 그는 비록 창의성의 비교학적인 연구 배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가 던진 비교종교학연구 질문은 좋은 시사를 준다.

“종교연구를 하는 전통적인 서양학자들은 그들의 입장과 학적 구조에 있어서 너무나도 ‘서구적’이었다. 동양종교의 경전이나 가르침을 다루는 사람들조차도 ‘서구적인’ 질문을 던지고 서구인들에게 의미있는 방식으로 동양인들의 경험을 구조화하도록 기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인 질문은 ‘이해’의 문제이며 보다 더 전문적으로 말해 해석의 문제이다. 다른 사람들, 다른 문명들, 다른 종교들이 우리와 다르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해라는 이런 과정의 성격은 무엇인가? 등급이 있는가? 해석자를 위한 전제는 무엇인가? 이해의 종류가 있는가? 그리고 한계는 무엇인가?”

바크의 이와 같은 지적은 창의성이 비교적인 이해를 하는데도 거의 수정없이 적용될 수 있다.

창의성의 개념적 이해

창의성은 무척 중요한 인간의 지적 특성으로 이해되어 오긴 했으나, 창의성이 학문적 관심의 영역으로 들어온지는 그리 오래지 않다. 영재교육상황에서 살펴 보면, 창의성은 1967년에야 겨우 영재성의 한 요인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미국

국립영재협회(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는 1967년에 열린 회의에서야 비로소 창의적인 영재를 영재의 한 부류로 받아들이게 되었으며,이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 교육국의 영재사무소에 의해 영재성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창의성의 연구와 교육적 관심의 역사는 이렇듯 그리 길지 않지만 심리학의 발달과 궤를 함께 하여 여러가지 이론들이 제안되었다. 개개의 심리학 이론이 상정하고 있는 인간의 특성, 사고의 과정,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 등은 특정한 창의성 이론을 구축할 수 있는 제반 요소들이 된다. 따라서 창의성을 인간의 능력요소로 보는 관점이 있을 수 있고, 인간의 성장을 통해 획득되는 자아실현의 입장으로 파악하는 관점 등이 있을 수 있게 된다.

여러가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정의될 수 있는 창의성을 다음과 같이 개념화 하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창의성은 새로움에 이르게 하는 개인의 사고 관련 특성이다.”

이는 창의성의 개인특성에 입각한 정의이다. 우선 이 정도의 정의를 기초로 창의성을 이해하는 발판을 마련해 본다. 위의 정의에는 주의를 끄는 세 낱말이 있다.

첫째, 새로움-이는 창의성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이면서 결정적인 특성이다. 창의성의 최종적인 판정기준은 이 새로움(독창성)에 있다. 그러나, 이 새로움은 그 판단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따른다.

① 새로움의 판정에는 그 범위가 문제된다.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발견되거나 창안된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인가 아니면 특정한 지역 또는 특정한 영역에서의 새로움인가? 유사한 생각들이 상이한 문화권 또는 국가에서 아무런 사전 접촉없이 동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특정영역의 새로운 이해를 위해 다른 영역의 이론체계나 설명체계를 빌어올 수 있다. 이런 예는 프로이드가 인간의 심리이해를 위해 당시의 지배적인 과학법칙의 하나였던 에너지보존법칙을 빌어온데서 확

인된다.

② 새로움에 부수되는 쓸모있음의 시기가 문제된다. 이는 고도의 철학적 가치판단의 문제이다. 창의적인 산출은 당대에는 쓸모없는 판정을 받고 무시되었으나 나중에 가치를 인정받은 경우가 허다하다.

③ 새로움에 부수되는 쓸모있음의 효과가 문제된다. 큰 효과만이 모든 것을 판정하는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둘째, 개인-사고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문제이다. 현재 활용되고 있는 많은 창의적 사고의 기법 훈련과정이 집단사고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사고에서의 불구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있다. 집단 사고의 상황에서는 전반적인 사고의 과정에서 부딪치는 특정한 단계에서의 어려움을 항상 다른 사람이 대신 해주게 되어 독자적으로는 전체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되는 사고에서의 불구자가 된다.

셋째, 특성-인간의 특성은 다양하지만 창의적 사고와 관련해서는 유전적 능력, 성장하면서 갖게되는 경험의 결과인 지력, 그리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고 또 하려는 태도 즉, 성향으로 구분된다.

기본적인 논의의 전개

동양과 서양에서의 창의성의 이해와 관련된 제반 논의를 전개한다. 이 과정에서 동양과 서양의 공정한 비교를 위해 기본되는 용어를 점검해야 한다. 온다는 동양의 창의성의 특성으로 이해되는 직관과 서양의 창의성의 특성인 독창성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본다. 이 점을 기초로 직관과 독창성으로 비교되는 동양의 창의성과 서양의 창의성을 정리한다.

동양에서의 창의성 이해

동양문화권에서는 창의성이 무척 중요한 인간 특성으로 받아들여졌다. 물론 창의성이란 이름을 갖지는 않았지만 동양 사상의 핵을 이루는 老莊 철학과 불교에서의 논의가 고도의 직관을 기초로

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말해 준다. 이들 논의에서는 창의성을 가진 사람들이 내보이는 말과 행동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서양의 창의성 연구자인 토랜스(Torrance)에 따르면, 서양에서는 창의성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때가 1800년대 후반부터인 것으로 보고 하고 있지만 동양에서는 이미 그 이전부터 창의성이 연구되고 실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동양에서의 창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양의 사상적 지주가 되어온 주장들을 검토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주장들이 가진 사고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가능하게 될 것이다. 동양의 창의성 관련 논의는 노장사상과 불교사상의 양대 지주로부터 나온다. 노장사상은 정형화된 논리를 거부한다. 사회의 그릇된 통념을 비판하되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창의적으로' 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며, 불교사상은 부단한 고된 연습(苦行)을 통해 중국에는 사고 및 행동에서의 무한한 자유를 얻는데 중점이 있다. 불교사상 중에서도 그 한 유파인 선불교의 가르침과 사상은 창의성과 관련하여 특별히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다. 동양적 창의성을 이해하고자 할 때 선불교에서의 몇몇 비화들을 인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중국 禪宗의 5대조인 弘忍 대사는 계송을 가장 잘 지은 제자에게 법통을 물려주겠다며 각자 계송을 지으라고 말한다. 제자들 중에서 똑똑하기로 소문난 神秀는 다음과 같은 계송을 지어 바친다.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때묻지 않도록 하라.

이와는 달리 별로 스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 듯했으나, 나름대로 내적인 선의 연마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慧能은 다음과 같은 계송을 지었다.

깨달음에 나무없고
거울 또한 曇가 아니라
본래 한 물건도 없으니
어느 곳에 티끌 일어나리오.

이렇게 두 사람이 지어 바친 계송을 훑어본 홍인 대사는 후자인 혜능의 계송을 보고 제대로 지어진 계송이라고 하면서 법통을 물려 주었다.

이 두 계송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앞의 것은 논리적이고 사변적이지만, 후자의 것은 직관적이고 경험적인데 그 큰특징이 있다. 이 일화 속에 동양적 사유의 전통과 특징이 있다. 즉, 논리적이고 사변적인 것보다는 직관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선호한 것이다. 이 점이 곧 선을 창의성의 연구영역에서 이해할 수 있는 지평을 열어주는 것이다.

선을 창의성의 한 원천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루어져 온 선과 창의성의 관련연구물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인 문제해결과 선공안은 둘 다 기존의 심적 방해요소를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긴 시간 동안의 주의 집중으로 충분한 효과를 얻으며, 모순되는 사태를 통일한다는 점, 좌뇌반구보다는 우뇌반구적이라는 점 그리고 공통되는 심리적인 과정을 갖고 있다는 점이 선의 창의적 이해의 기초가 되기도 하고, 禪적인 洞察은 무엇인가를 새로운 방식으로 배우려는 감을 잡게 해주는데, 이는 우리가 이미 배운 것과는 다른 것이라는데서 선의 창의적 이해의 기초를 찾기도 한다.

선에서의 창의성 발현의 조건은 독특하다. 다음의 예를 보자.

“어떤 녀석이 우리의 조주에게 물었다.

“구도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조주가 말했다. 「음, 부모를 죽이는 일이다. 형제를 죽이는 일이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 버리고, 스승을 만나면 스승을 죽여 버리고, 마지막에는 너 자신까지를 죽여 버리는 바로 그것이다.”

선을 비롯한 동양의 사상에서 파악하고 있는 창의성의 발현조건은 첫째, 창의성은 창의성에 관련된 특정한 기능들이 완전히 통달된 후에 나타난다는 것, 그리고 둘째는 새로운 입장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입장(즉,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된다.

서양에서의 창의성 이해

서양에서는 창의(창조)라는 개념이 신에 의한 인간의 창조와 동일한 것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창조는 궁극적으로 “원인이 없이 나타나는 결과”를 의미한다. 신이 자신의 의사로 자신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창조했다는 점에서 보면 창조는 곧 신만이 가진 권능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도 창의성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은 인간이 신의 권능에 도전하는 것과 다름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서양에서의 창의성에 대한 관심은, 물론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로의 길을 걸었지만, 신학에서 신의 창조행위에 대한 俗化를 예방할 수 있는 논리가 구축된 다음에야 가능했던 것이다. 따라서 창의성에 대한 관심의 입장에서 보면 서양에서 보다는 동양에서 창의성에 대한 이해의 원천을 찾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토랜스(Torrance)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서구의 창의성에 대한 관심의 역사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에 의하면 미국에서의 창의성 연구자들의 창의성 연구역사에 대한 오해는 심각하다는 것이다. 많은 수의 학자들이 미국에서의 창의성 연구가 1950년도에 길포드(Guilford)가 행한 심리학회 회장 취임연설부터 활성화되었다고 믿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며 실제로는 180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그도 동양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벌써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서양의 창의성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늦게 출현한 셈이며 창의성의 이해 또한 본질적인 창조의 측면을 다루지 않았던 것이다. 메이(May)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이 점을 이해하는 데 적절한 것 같다. “창조란 비과학적이며 신비스럽고 혼란만 초래하며 대학원생들의 과학적 훈련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창의성을 서양의 지적 전통에서 추구하는 논리성과 합리성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창의성의 두가지 원천인 독창성과 직관은 공통

성이 있는데, 서양에서는 직관의 가치를 낮추어 보고 합리성을 이상으로 추구하는 학적 전통으로 인해 창의성에 대한 관심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예를 살펴 보자.

서양의 대표적인 인지 발달론자인 삐아제의 인지 발달론에서 차지하고 있는 직관의 위치를 살펴봄으로써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어린 아동의 사고에서 한가지 특이한 특성은 이들이 주장을 하면서 사실을 가지고 주장을 지지하도록 하지 않는 것이다.

그가 지적하고 있는 이 시기의 어린 아동들이 내보이는 사고의 한가지 특성이 바로 직관적 사고이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직관적 사고는 논리적인 사고 대신에 (그리고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하기 전에) 아동들이 내면화된 심상과 정신경험을 수단삼아 하는 사고인 셈이다. 그런데 그가 지적하는 이 시기의 아동은 그의 인지발달단계의 하위에 속하는 전조작기의 아동이다. 삐아제의 인지발달이론에서는 직관적 사고가 성숙된 사고인 형식적 사고기 이전에 나타나는 구체적 사고의 일부로 이해된다는데 중점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 절하되었던 직관은 창의성 연구자들에 의해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창의적 인성을 연구한 맥किन(MacKinnon)은 창의성이란 말 속에는 창의적 아이디어가 적절히 개발되도록 하기 위해 사고 초기의 신기한 통찰(직관)을 정교화하는 활동이 포함된다고 본다. 신기한 통찰 즉, 직관은 창의적인 인성의 한 준거인 것이다. 창의성 연구자인 시몬톤(Simonton, D.K.)은 창의적 문제 해결에서의 직관과 분석의 관계에 관한 실험결과 창의성이 높은 사람은 직관이 지시하는 대로 문제해결에 임하고 창의성이 낮은 사람은 분석이 지시하는 대로 문제해결에 임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심리학자이며 창의성 연구자인 고완(Cowan, J.) 또한 창의적인 경험은 직관적인 과정을 포함한다고 보고했다. 자유로운 연상을 증진하는 이완된 분위기는 의식의 전도된 상태로 이끄는 경향이 있다. 이들 전도된 상태에서는 의식적인 통제로부터 전의식적으로 옮겨가는 능력이 직관적

인 과정을 증진할 것이다.

이런 학적 전통에 의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한 창의성에 대한 교육적 무관심을 통렬하게 지적한 사람이 곧 길포드인 것이다. 길포드의 1950년도 미국심리학회 회장 취임연설에 나타난 미국의 창의성 연구의 무시현상은 심각한 것이어서, 당시 까지 23년 동안에 이루어진 Psychological Abstracts의 목록 가운데서 창의성 관련연구의 목록수는 단지 186개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의 이런 지적 후에 창의성에 대한 관심의 도는 강렬해졌으며, 창의성에 대한 연구물이 놀랄 정도로 늘어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우선 언급할 수 있는 연구성과가 창의성의 증진과 발전을 위해 브레인스토밍의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현장에 활용하도록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브레인스토밍은 창의성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면서 동시에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다. 이 원리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모아 놓고 주어진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도록 한다. 한 사람의 사회자가 이들 아이디어들을 정리하여 이 중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골라 내고 이를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의 한가지 가정은 한사람 보다는 두사람이 그리고 두사람 보다는 세사람이 더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아이디어의 양이 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데 있다.

필자는 이 가정이 바로 서양의 창의성 이해의 핵을 이루는 것으로 파악한다. 창의성은 별다른 훈련이나 기능의 습득이 없어도 주변의 상황만 허용적으로 보장되면 발현된다는 것이다. 이런 예는 자주 쓰이는 또 다른 하나의 창의성 기법에서도 볼 수 있다. 고돈(Gordon)의 Syntectics가 그것인데, 이 방법도 앞의 브레인스토밍과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 살펴본 동양과 서양의 창의성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의성의 단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창의성의 단계는 인지발달과 같이 단계에 따른 상대적 가치가 전제되는 것이 아니라 창의성의 종합적 이해를 위한 임의적 단계이

다. 물론 학자에 따라서는 단계의 상대적 가치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필자는 창의성의 단계는 ‘어린 아이의 모습을 갖는 단계’와 ‘도사(성인)의 모습을 갖는 단계’로 구분될 수 있음을 제안한 바 있다.

위에서 논의한 동양과 서양의 창의성에 이런 단계구분을 적용하면, 동양의 창의성은 도사(성인)의 모습을 추구하는 창의성이고 서양의 창의성은 어린 아이의 모습을 추구하는 창의성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비교적 이해

많은 연구물에서 사고의 동서양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는 자국문화 우월주의에 입각한 주장이 있을 수 있고 나름대로의 엄정한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일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차이를 간략히 살펴 본다.

사고에서의 동서양 차이	
동 양	서 양
선적 직관	개념적 분석
역설의 논리	형식 논리
양면 동시 부정	일시 부정
직접적, 전체적 경험	간접적, 분할적 경험
연역적	귀납적
상관적(전체성 고려)	분석적

위의 구분은 물론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 일반화된 결론을 전제로 이를 지지하는 구체적인 사례들만을 취하고 그렇지 않은 사례들은 제외한데서 오는 한계는 필연적일 것이다. 이 점 때문에 위의 일반화된 사고의 동서양의 차이를 넘어서는 논의가 있어야 하고 이런 논의는 차이의 근원을 캐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른 동양과 서양의 사고의 차이와 이의 근원적 이해를 통해 창의성의 다른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동양의 관점과 서양의 관점이 갖는 차이점을 인식해야 한다.

창의성의 개념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교육활동의 동서양 차이를 살펴 본다. 동양에서의 학습은 서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동양에서는 서양보다는 훨씬 더 적은 책이나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시하고 학생들은 성인에 의해 이미 의도된 접촉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는 성인들의 행위를 그대로 옮기는 모방의 시기가 존재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내용을 통달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는 자유로움을 얻게 된다. 이것이 곧 창의성의 원천인 셈인데, 달리 말하면 동양에서는 몰리트를 통해 자유로움을 얻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엄격한 훈련과 무자비한 모방이 필수적이라는 데서 서양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면서도 독특한 동양의 창의성의 특색이 있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적은 책과 자료→의도된 접촉(성인에 의해)→통달(모방+몰리트기)→자유로움 성취→적용[창의적 사고]

그러나, 서양에서의 교육은 동양과는 달리 많은 책과 자료를 학생들에게 제시해줌으로써 학생들이 여기에서 다루어진 다양한 경험을 무작위로 접촉하게 한다. 학생들은 자신들이 접촉한 바 있는 이들 경험 중에서 의미있는 내용을 발견하고 이를 축적하여 생활사태에 적용하게 한다. 이 과정에서 창의성이 발휘된다는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그리면 다음과 같은 경로를 갖는다.

많은 책과 자료→무작위한 접촉→의미있는 내용발견→축적→생활사태 적용[창의적 사고]

이런 학습의 차이가 창의성을 보는 눈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동양에서는 창의성을 갖도록 학습자로 하여금 특정한 영역에서 최하위 수준부터 무자비할 정도의 훈련 또는 경험을 거치게 한다. 그 결과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유로운 상태에 도달한다. 이 자유스러운 상태가 곧 창의성의 원천이며 창의적 사고의 에너지이다. 그 결과 특별

히 창의적인 산출을 하려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창의적 사고를 하게 되는 상태에 다다른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그려질 수 있다.

특정한 영역에서 최하층수준부터 무자비할 정도의 훈련 또는 경험을 거치게 함→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자유 획득→이 자유가 곧 창의성의 원천→창의적 삶과 사고

그러나 이와는 달리 서양에서는 창의성이란 별도의 특별한 훈련없이도 주변 상황을 창의적 아이디어가 산출될 수 있도록 조성한 다음, 주어진 과제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산출하도록 이끄는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많은 양의 아이디어 중에서 질적으로 좋은 아이디어 즉, 독창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추출한다. 달리 말하면, 양이 질을 결정짓는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이 그려질 수 있다.

별도의 훈련없이 상황조성으로 만족→많은 양의 아이디어산출→질적으로 좋은 아이디어추출[양이 질을 결정]

동양의 창의성 발현과 교육에의 시사

동양의 창의성 발현

일본인 고바야시(Kobayashi)는 1980년에 발간 연구에서 1975년부터 1978년까지 대학에 입학한 일본과 미국의 대학생들에게 토랜스 창의성 검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미국 학생들은 매년 언어 소검사에서의 의미있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도형검사의 독창성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정교성에서는 일본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을 앞질렀다.

토랜스와 사토(Torrance and Sato)는 일본의 교육학 전공 대학생들과 미국의 교육학 전공 대학생들 간의 도형검사에서의 성취도 비교결과 미국 대학생들은 유창성에서만 일본대학생들을 앞질렀고,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조속한 폐쇄성에 대한 관용, 벽을 깨거나 넓히기, 특이한 도형 조망, 유머, 느낌과 정서, 환상과 운동에서는 일본

학생들이 미국 학생들을 앞서고 있음을 발견했다.

토랜스는 이 결과를 기초로 미국 학생들은 과제에 대해 충동적이고 논리적으로 반응하여 많은 수의 반응들을 내놓기는 했으나 창의적인 강도가 낮은 것이었음에 반해, 일본 학생들은 사려깊고 직관적으로 반응하여 더 적은 수의 반응을 내놓기는 했으나 창의적인 강도가 더 높은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도 동양의 연습에 기초한 창의성과 서양의 자유로운 반응에 기초한 창의성의 차이를 읽을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쓰노다(Tsunoda)가 1978년에 행한 실험결과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그는 좌우뇌 반구에 의해 작용하는 상이한 기능들을 청각적으로 분석하여, 일본인들과 서구인들과는 인지 과정에서 차이가 있음을 밝혀 냈다.

서구인들의 두뇌는 좌우뇌반구가 좌측은 활동의 합리적인 영역을 통제하고 우측은 활동의 감각적인 영역을 통제하는 것으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반면에, 일본인들의 좌측 “언어적” 반구는 합리적이고 감각적인 인지기능들의 양면을 다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인간의 목소리, 새와 동물의 울음소리, 곤충들의 날개짓, 파도소리 등을 언어반구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일본인들의 자연의 소리에 대한 인지형태의 특이성을 나타내주는 것 같다. 그러나 서구인들은 이들 소리를 우측반구에서 처리한다.

그런데, 한가지 흥미있는 점은 이런 구분이 인간의 뇌반구 기능분담이론과 대체적으로 맞아들어 간다는 사실이다. 뇌반구 기능분담이론에서 연구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 뇌	좌 뇌
직관적	논리적
목시적	외현적
시공간적	언어적
종합적	계열적
동시적 정보처리	직선적 정보 처리

이런 점에서 보면 동양인들은 우뇌적인 사고가 강한 반면 서양인들은 좌뇌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이 차이가 곧 창의성의 이해와 이의 발현 조건에서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 동양에서는 서양과는 다른 창의적 사고의 방법들을 개발해 왔다. 훈련과 직관에 기초를 둔 기법이 그것이다. 선수행자들의 공안은 좋은 예이다.

“혀를 사용하지 않고 말해 보아라.”

“한 손바닥으로 손뼉을 치면 무슨 소리가 나는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수행자들은 탐구와 명상을 한다. 이 문제는 결국 융통성이 없이는 풀기 어렵다.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전형적인 문제해결의 절차를 좇아 해결하는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 창의성의 중요한 요소인 융통성이 요구된다. 이는 자신이 가진 관점을 깨뜨리고 새로운 자아를 형성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융통성은 또한 주어진 환경에 적극적으로 순응함을 의미한다. 동양인은 아주 많은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학교 교육에의 시사

동양과 비교되는 서양의 창의성에 대한 개념을 검토한 후에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과제는 ‘특유한 동양의 창의성을 확인했다면 그 내용 요소를 어떻게 추출하고 이를 학교교육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하는 학교교육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일이다. 이 작업은 물론 동양의 창의성 개념화에 기초를 두게 되지만 서양에서의 창의성 내용 체계화 작업에 상당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에 논의된 사고의 내용 추출 연구결과의 도움을 얻어 창의적 사고의 내용요소를 추출하여 창의적 사고의 내용지도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다.

창의적 사고의 증진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내용의 영역을 기능, 성향, 지식, 경험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에 따른 내용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글은 지난 5월24일 한국과학재단이 주최한 「21세기 한국민의 창의력 발현을 위한 포럼」에서 발표된 것임. …………… <편집자註>

가. 창의적 사고 관련 기능들

창의적인 사고에서 요구되는 기능도 전반적인 사고 과정에서 요구되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고 과정에서 개인이 경험하는 의식은 개인에 따라 그리고 사고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그러나, 창의적 사고의 과정에서 개인이 동원하는 기능들은 다음의 몇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 ① 민감성-주위의 변화에 대해 민감스럽게 반응할 수 있도록 준비된 능력.
- ② 유창성-사고의 상황에서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
- ③ 융통성-자신의 기존 관점을 깨뜨리고 사고 방식이나 시각을 변환시켜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
- ④ 독창성-기존의 것에서 탈피하여 참신한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
- ⑤ 정교성-직관을 통해 얻어진 아이디어를 보다 치밀한 것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

나. 창의적 사고 관련 성향

창의적 성향은 인간의 내적 인지적 특성으로써 창의적 사고 기능이 최종적인 성취를 위해 작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에게 요구되는 태도 특성이 다.

- ① 독자성-자신이 생각해 낸 아이디어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구애 받지 않으려는 성향이나 태도.
- ② 근면성-내적인 자유를 얻기까지 끊임없이 정진하려는 태도.

③ 변화에 대한 개방성-이 세상은 변화하고 있으며 내 자신이 이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자발적인 태도.

다. 창의적 사고 관련 지식

학생들이 보다 더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창의적 사고 관련 지식을 보다 더 많이 접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들 지식중에는 창의적 사고가 또는 선인들의 사고 과정을 정리한 자료가 포함될 수 있고, 인간의 사고에 대한 제반 이론이 포함될 수 있다.

라. 자신의 경험탐색과 의미부여

자신이 그동안 했던 경험을 떠올리고 이의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학교에서 교사가 주도하는 창의적 사고의 수업, 그리고 친구들과끼리 해보는 창의적 놀이의 경험 그리고 여기에 더해 가정에서 창의적 사고를 자극할 수 있는 경험들을 보다 더 많이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맺는 말

지금까지 창의성의 동양과 서양의 관점 비교를 해보고 여기에서 얻어진 동양의 창의성 이해를 기초로 한 창의성 교육의 내용 구성을 위한 탐색을 해보았다.

이어서 연구되어야 할 것은 동양적 창의성의 본질에 입각한 창의성 연구의 전형(paradigm)과 교육방법의 구안이라고 생각한다.

□ 표지설명

1990년 6월25일부터 7월7일까지 13일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개최하는 「1990 세계한민족과학기술자종합학술대회」 안내 포스터.